
서 평

www.kci.go.kr

자서전은 사료가 될 수 있을까?

[서평] 이정식(2020), 『이정식 자서전 — 만주 별판의 소년 가장, 아이비리그 교수 되다』, 일조각, 384쪽.

김 인 수*

1. 자서전 비평하기의 고됨

작년 초 지인에게서 『이정식 자서전』(이하 『자서전』)이 일조각에서 출간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가졌다. 개인적으로 2020년 8월에 논문을 한 편 출판했는데,¹⁾ 이 논문에서 다룬 사건들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정식 교수(1931~)였다. 논문의 간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서전』(2020년 8월 말 출판)을 입수해 읽어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미리 읽을 수 있었다라면 주석에 덧붙일 수 있었을 몇몇 에피소드를 발견하면서 일종의 ‘보론’으로 간단한 글을 한 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문논총』 편집부로부터 서평 제안을 받았을 때 반색했던 이유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전임연구원

1) 김인수(2020), 「1960~70년대 한국학의 토대와 네트워크 — 아시아학술기관교류위원회(CEAD), 아세아문제연구소(ARC), 한국학공동위원회(JCKS)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77 (3), pp. 59-109.

이 책에 대한 기대는 오롯이 나만의 것은 아니어서, 책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많은 서평과 인터뷰가 쏟아졌다. 다음은 그 대강의 목록이다.

권성우, “한 권의 자서전이 준 감동과 여운”, 서울신문 2020년 10월 13일자.

강성만, “우리 세대 전반부는 운명적인 현대사 드라마의 연속이었죠”, 한겨레 2020년 9월 28일자.

김학준, “개인 차원 뛰어넘어 파란만장한 민족 역사의 기록”, 동아일보 2020년 9월 19일자.

김기철, “‘평양쌀장수’ ‘면화공장 청소부’ ‘국민방위군’ …… 九旬 석학이 몸으로 겪은 한국 현대사”, 조선일보 2020년 9월 10일자.

이 글들은 이정식의 삶의 궤적과 학문적 성취의 내역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담담히 잘 짚어내고 있다. 특히, 김학준은 『자서전』을 충실히 다루어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그 내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소개하였다. 이외에, 오랫동안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를 천착해온 원로 역사학자와 학술사 연구에 진력해온 신예 국제정치학자가 이 저작을 인용하면서 이정식과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이론틀을 비교하여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²⁾

자서전을 읽는 일은 문득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기막힌 선물이고 또 무척 흥미진진한 경험일 수 있지만, 이를 비평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사뭇 달라진다. 거기에는 고난도의 곡예가 필요하다. 자서전 독서에는 자서전 저자의 자기주도적이고 주관적인 서사에 적절히 몰입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는 작업이 필요한데,

2) 옥창준·최규진(2020), 「이정식과 브루스 커밍스 저술에 대한 대위법(對位法)적 독해」, 수선사학회, 『史林』 74, pp. 349-381.

그건 생각보다 힘들고 고된 일이다. 특히, 자서전을 일종의 사료로 인용하려고 하면, 그에 앞서 입증과 반증의 근거를 그러모으고 대조해가며 문면의 의미를 확정지어야 한다. 거기에는 제법 많은 품이 든다. 자서전은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치면 질적 방법론 가운데 생애사 구술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에 해당한다. 질적 방법론이 학술장에서 종종 자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서전이라는 텍스트 역시 사료로서는 그러한 지위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작가와 문단권력을 공유하려는 셈속이 빠른 ‘주례사비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미 넘치는 생생한 삶의 기록인 자서전을 대할 때 저자의 삶에 몰입하고 상찬하려는 유혹을 무조건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자서전은 사료가 될 수 있을까?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 자서전이라는 장르: “그는 왜 이 글을 썼을까?”

『자서전』을 읽으면서 저자가 이 글을 쓴 이유가 궁금해졌다. 이 자서전의 초고가 된 것은 2018년부터 약 2년 간 월간 『문학사상』에 “세계적 석학 이정식의 인문학적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해온 글이라고 하는데(p. 373), 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정식은 자서전에 준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풀어놓은 적이 있다. *Communism in Korea* (1973)의 제1권의 개정번역판³⁾을 내면서 말미에 “이정식 — 한홍구 대담: 이정식이 걸어온 학문의 길”을 실은 것이 대표적이다. 40쪽 남짓한 분량이지만, 『자서전』을 이루는 주요한 이야기의 골격이 모두 소개되어 있다. 이제 와 돌이켜볼 때, 저자로서는 사전 몸 풀기 같은 글이

3)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지음, 한홍구 옮김(2015),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돌베개.

겠지만 독자로서는 일종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다. 이 글이 대담의 형식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자서전』은 이보다 살이 많이 붙어 있고 또 자기주도적이다.

“이정식 — 한홍구 대담”은 질문자인 한홍구의 관심에 따라 주로 학문적 논의에 치중해 있다. 전체 분량의 30% 정도가 성장과정과 한국 전쟁기의 행적에 관한 것이고 70%는 학계에서의 활동에 할애되었다. 그런데 『자서전』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미국유학(1954)을 떠나기 이전까지의 삶을 다룬 부분이 오히려 전체 분량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23년”(1931~1953)의 유년과 청년의 삶의 기록이 어쩌면 저렇게 파란만장하고 장대할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르게 되지만, 맥락화의 눈을 장착한 노년의 시야에서 정작 당시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서술이 대폭 보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서전』에는 “그 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일 것이다.

이 유년과 청년의 삶을 이정식은 왜 새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사람의 인생에서 삶을 압도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억의 시간이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23년”에 관한 그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비상하며 게다가 서술도 매우 촘촘하다. 근래가 아니라 어쩌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작정을 하고 쓴 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자서전』이 “나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던 경우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주어진 길을 무턱대고 걸었던 때가 더 많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1974년 우드로 윌슨 파운데이션 상(Woodrow Wilson Foundation Award)을 수상한 데에서 끝난 점은 예사롭지 않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삶(이자 행운)’이라는 서사는 자서전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관용구이자 겸사에 가깝다. 자서전은 장르의 속성상 인생의 장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고난과 생존(survival)의 서사로

채워지기 일쑤다. 『자서전』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생존은 이정식이라는 한 인간이 살아낸 삶의 영웅성을 부각하며 자신이 처했던 시간과 공간의 맥락성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데 그의 이 고난과 생존은 미국 유학,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교수와의 만남과 공동작업, 그리고 “1974년 우드로 윌슨 파운데이션 상의 수상”이라는 시계열에 선 일련의 사건들의 연쇄를 떠받치는 토대로서 읽어봄직도 하다. 특히,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과 그것이 자신의 인생, 학문에서 가졌던 의미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렇다.

3. 언어, 그의 삶을 이끈 특장의 무기

『자서전』에서 “23년”은 자신의 학업시대와 일본어, 중국어, 영어의 습득과정, 만주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호감과 북한정권에 대한 반감, 아버지의 실종(1946년 3월) 이후 소년 가장으로서의 삶, 전쟁의 한복판에서 빈곤과 죽음의 위기에 시달린 경험으로 채워져 있다. 그의 “23년”의 삶은 평양 근교에서 태어나(1931) 아버지의 생업으로 만주의 테링(鐵嶺)과 중국의 한커우(1939-1940)로 이동하고, 자신의 학업을 위해 평양(1941~1943)에 남겨진 뒤, 다시 만주 랴오양(遼陽, 1943~1948)과 해방 이후의 평양(1948~1950)을 거쳐 한국전쟁 시기에 월남과 피난을 가게 된 과정, 그리고 미군 통역부대에 들어가 포로심문원으로 복무하게 된 일(1950. 12~1953) 등으로 점철된 곡절 많은 이동의 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이동의 과정에서 이정식이 체화한 언어감각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정식은 한커우의 메이지심상소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일본어 발음이 일본인의 그것과 완전히 똑같아졌고”(p. 41), 해방 이후에 “성경을 독본 삼아 한글을 배우기 시작”(p. 133)했으며,

랴오양 면화공장(1946년 11월~1948년 2월)에서 “중국어와 주산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pp. 183-184)고 회고한다. 특히, 랴오양에서 쌓은 중국어 실력은 한국전쟁기 중국인 포로의 심문을 위해 설치된 미 극동군 총사령부 번역-통역부대(Advanced, Allied Translator-Interpreter Service; ADVATIS)에 지원할 때 빛을 발했다. 포로들은 중공군에 흡수되기 전의 국민당군이 다수였기 때문에 대화에 주저함이 없었고 이들로부터 미 공군의 전략폭격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 ATIS 소속 군인 다수가 일본계 미국인 2세대들이었고 중국계 미국인 2세대들은 주로 광둥 출신이어서 북경어가 통하지 않아 결국 일본어와 중국어가 모두 가능한 한국인 통역관들을 모집하여 이중통역(중역)의 형태로 포로심문을 진행했다는 점, 자신은 그 조건에 적격이어서 통역관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는 점, 중국인 포로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련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있었음을 일찌감치 알게 되었다는 점”(pp. 286-291) 등은 매우 인상적이다. ATIS에서 복무하면서 이정식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겐큐샤(硏究社)에서 나온 영어-일본어 사전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2년 쯤 뒤엔 한국어-일본어-중국어-영어를 두루 쓸 줄 아는 ‘4개 국어 통역관’이 되었다고 한다(pp. 291-295).

『자서전』에 따르면, 이러한 이력과 언어의 섭렵이 결국 자신의 미국 유학을 가능하게 했고, UC-버클리의 스칼라피노 교수의 조교로 발탁되어 일약 한국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거장이 되는 길로 그를 이끌었다(pp. 338-342). 언어에 관한 한 이정식은 동년배에 비해서도 대단히 예외적인 개인이었던 셈인데, 특히 랴오양의 공장에서 사무직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를 체화할 수 있었던 점이 그의 삶에 가져온 독특한 결과가 이채롭다.

4. 공산주의 비판의 자기정당화

한편, 『자서전』은 이정식 자신이 한국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관해 특정한 이미지를 ‘체득’하게 된 과정을 생애사의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정당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얕곳은 일이지만, 이정식의 삶은 전쟁(만주사변, 1931)과 함께 시작되었고 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전쟁)에 관통되었다. 그가 만주와 한반도를 오간 “23년” 동안 그곳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라 불리는 전쟁 상태였다. 어쩌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그에게 감히 행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포함하여 그의 세대 전체는 전쟁으로 고통 받았다. 제1,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유럽과 미국에서 두 세대가 단번에 사라져 버렸듯이 한국과 아시아에서도 특정한 연령대의 세대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몰살당해야만 했다. 『자서전』이 이러한 전쟁 상태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을 쓴 그는 일개 개인인 동시에 시대의 전형성을 띤 인물이기도 하다. 어쩌면 『자서전』은 시대의 풍경을 간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울이나 지도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이리라. 『자서전』에는 우리의 윗세대가 겪은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가, 근현대사의 비극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책이 출판된 이후 책에 쏟아진 곡진한 찬사와 감사는 아마 그러한 감각의 발로일 것이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자서전』에 따르면, “만주의 한커우에서는 들어본 바 없는 황국신민서사”는 한국인에게만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p. 61), 부끄러운 일이지만 “집에서 조선어를 쓰고 된장찌개와 김치를 먹던 나와 학교에서 일본어를 쓰면서 가미카제 정신을 부르짖는 나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다.”(p. 65) 이정식은 만주에서 패전을 맞이한 관동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과정, 그리고 중국 팔로군과 그 산하의 조선의용대가 소련군의 후원 속에 만주에 주둔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자서전』에서

이정식은 자신이 만주에서 본 1948년 초까지의 중국 공산주의와 그 후에 보게 된 북한 공산주의의 차이를 변별하고 대조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부드럽고 서민적인 데 반해 북한의 그것은 딱딱하고 관료주의적”이라고 하면서 북한 공산주의는 관료주의적인 조선의 정치문화가 가져온 전통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pp. 128-131). 또, 레닌이 혁명 이후 급진적인 혁명정책을 펴다가 오히려 정권이 위태로워지자 1921년 3월에 농업, 상업, 경공업 부문의 개인소유를 허용하는 신경제정책(1921~1928)을 폈고 이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도 상통했지만, 스탈린의 출현 이후 소련과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에서는 과격한 집단화와 국유화가 진행되었다고 보았다(p. 220). 한국전쟁기 평양에서 이루어진 북한군의 징집이 1941년 일본군의 징병 행태와 너무도 닮아있었다는 불만(p. 238), 그리고 국가건설 이후로 북한 정권이 보여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혐오는 청년 이정식의 뇌리에 깊게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유엔군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만을 고대”(p. 256)했다는 고백은 어쩌면 그로서는 매우 당연한 생생한 증언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렇더라도, 한국 군대 역시 그가 직접 경험한 국민방위군 사건처럼 부정부패와 부조리로 청년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고(p. 281), 부와 자유의 땅으로 선망하던 미국에 도착하여 그가 처음 배움을 시작하던 곳에서 특정한 사고에 경도되어 지적 세계와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반지성주의의 인물군상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p. 326), 그의 비판의식이 이 방면에는 그리 강렬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5. 자서전 읽기로 지성사 연구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자서전』을 읽는 일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서전』은 *Communism in Korea* (1973)의 집필경위에 대한 소개이자 정당화, 심지어는 저자 나름의 변명으로도 읽힌다. “나 이정식은 어떻게 *Communism in Korea* (1973)을 쓸 수 있었고, 또 왜 그렇게 써야만 했는가?”라는 자문(自問)에 대한 자답(自答)인 셈이다. “23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4개 국어를 섭렵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만주와 한반도를 넘나들면서 여러 정치적 사건과 군상들을 마주하며 반공주의와 반북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고백, 그리고 그와 같은 ‘체득’이 있었기에 스스로 스칼라피노를 만날 수 있었고 드디어는 *Communism in Korea* (1973)라는 작품을 버려낼 수 있었다는 자부,⁴⁾ 혹시 그것이 이 『자서전』을 쓰고자 했던 이정식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Communism in Korea (1973)는 그때나 지금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품으로 남아 있지만, 당시 스칼라피노가 CIA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콜론보고서(1959)를 통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음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이정식 자신도 1967년에 랜드연구소의 지원으로 *Counterinsurgency in Manchuria: the Japanese experience, 1931~1940*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데, 이 책 때문에 “미국의 베트남전쟁 수행에 협력했다는 핀잔”⁵⁾을 받기도 했다. 그럴 진대, 『자서전』은 이제야 뒤늦게나마 말할 수 있는 작품의 성립경위에 대한 이정식 자신의 애정 어린 고백이랄 수 있을 듯하다. *Communism in Korea* (1973)는 지금 와서는 1960년대 냉전의 세계관에서 한 치도

4) 이정식이 스칼라피노의 연구조교로 발탁되는 과정은 『자서전』 pp. 338-342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5) 스칼라피노·이정식, 앞의 책, p. 1076.

벗어나지 못한 책이었다는 세간의 평판을 듣기도 하지만,⁶⁾ 김일성의 실제조차 정확히 논의하기가 어려웠던 ‘열전 한반도’의 한계를 꽤 이른 시점에 뛰어넘었던 저작이라는 점은 평가해 둘만하다.

그렇다면 이 『자서전』을 자료로 삼아 지성사 연구를 하는 일은 가능할까? 『자서전』은 확정적 사실을 발굴하겠다는 태도로 접근했을 때는 별로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책일지도 모른다. 『자서전』이 부득이하게 주관성의 세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사실들을 2021년의 우리는 이미 다른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보다는 지성사와 지식사회학의 차원에서 많은 함의와 자극을 던져준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이 방면에서 망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59년 여름 연구비 300달러를 들고 대륙을 횡단하여 워싱턴의 미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을 찾아 자료의 광맥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 찾아왔을 희열, 자료목록만 있고 상세목록이 없어 자료를 일일이 열어보는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그가 느꼈을 보람, 미군정이 압수해 온 일본 육군성, 해군성, 외무성,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극비자료를 누구보다도 먼저 읽을 수 있었던 행운(pp. 343-345), 1960년대 중후반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 머물며 김남식 등 북한정권의 핵심에서 활동했던 전향인사들을 인터뷰하여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일들(pp. 363-364) 같은 에피소드는 당시 한국의 공산주의와 북한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했던 물질적 토대가 어떤 것이었는

6) 안드레 슈미드의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 10여 년 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북한 연구가 “시간의 변화를 무시한 획일적인 전체주의, 기이한 정치문화”라는 냉전 시대의 논리와 세계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을 낳은 최초의 기원으로 스칼라피노·이정식의 책을 들고 있다. 그는 이들이 북한이 떠난 공식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북한의 국가권력이 지닌 역량을 과대표상하는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안드레 슈미드(2019), 고선호 옮김, 「북한을 역사화하기: 국가사회주의, 인구이동, 그리고 냉전사학」, 『사회와역사』 124, 한국사회사학회, pp. 175-178, pp. 186-187].

지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정식 자신이 아무리 자료와 증언의 “객관성 문제, 신빙성 문제 등이 있음을 인식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했”(p. 364)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들, 오로지 자신에게만 허락된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료들 앞에서 과연 절제할 여력이 있었는지는 좀체 가늠하기 어렵다. 그 앞에서 흥분하고 몰입하는 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일제(日帝)가 만들어 놓은 일급 비밀서류들, 월남하여 북한을 버린 이들의 살아있는 증언, 자신이 소속하여 보고 느낀 한국사회의 오랜 습속과 전통,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허용된 좁은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계, 지도교수이자 영원한 롤모델인 스칼라피노의 주문(order), 당시 미국의 학계와 일상을 구속했던 냉전의 세계관…….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이정식의 학문세계를 구성하고 동시에 구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서전』 그리고 “이정식”은 냉전기 미국의 한국학,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조건과 궤적을 탐문해가는 지성사 연구의 분석대상으로서 발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자서전』을 읽으면서 맘에 들었던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는 것도 좋겠다. “이정식”과 그의 『자서전』을 연구대상으로 대할 때 문득 떠올려야 할 구절이 아닐까 싶다.

“나는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기술하되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논문을 썼다. …… 독립운동가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영웅 칭호를 받을 만한 이들이었고 내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들도 장점과 동시에 결함이 많은 인간이었다.”(p. 359)

